



FACT SHEET 2015

시장 변화 이니셔티브

원자재 시장이 중요한 이유

인류는 현재 지구 가용범위의 1.5배에 달하는 속도로 천연자원을 소비하고 있어 자연과 인류에 엄청난 부담이 발생하고 그 미래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인구 증가 및 소득 증대와 함께 인류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UN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40년간 필요한 식량의 총량은 지난 8,000년간 재배된 총량을 합친 것보다 많다.

어떻게 하면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연료, 섬유 등 원자재 수요 증대를 충족하면서도 식수를 보존하고 기후를 안정시키며 깨끗한 공기와 야생지역을 후세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역점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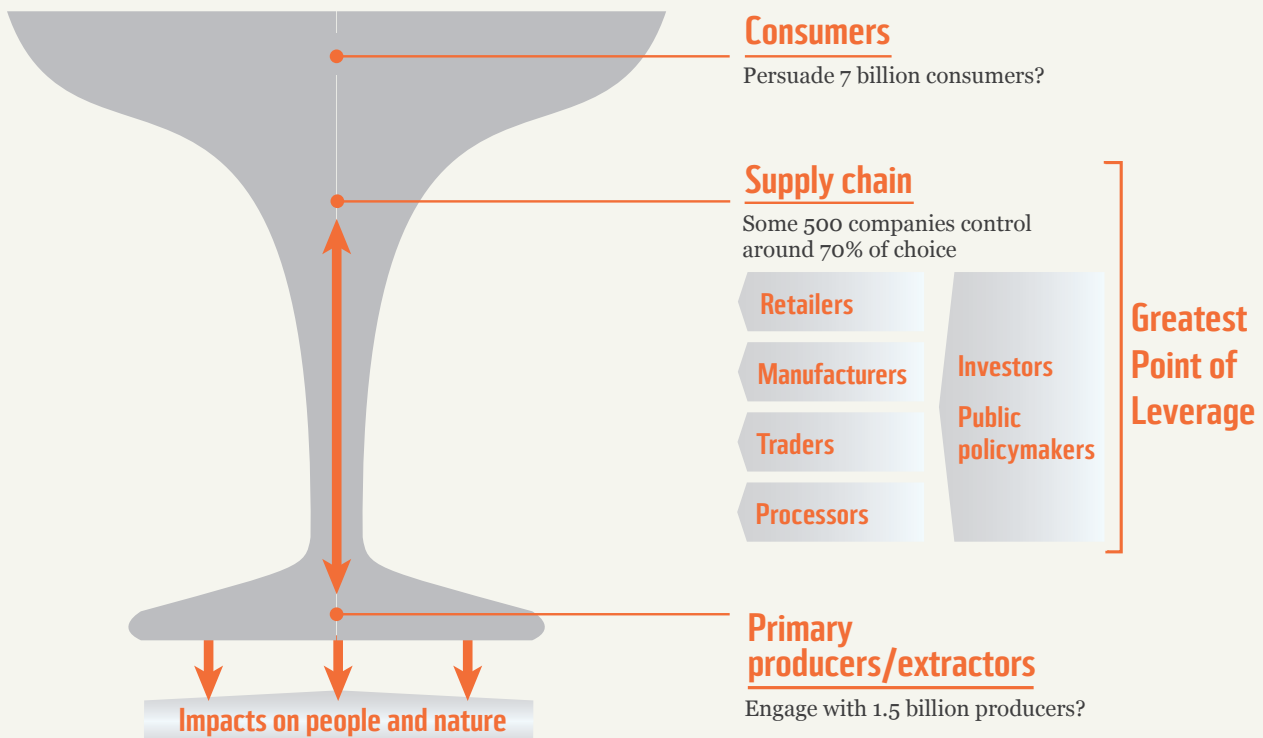
WWF는 생물다양성, 수자원, 기후와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총 15개의 핵심 원자재에 역점을 두고 자연보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역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핵심 원자재는 수억 명의 생계와 식량공급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가장 궁핍한 인구에 속한다. 따라서 이들 원자재에 있어 환경 및 사회경제적 혜택을 생각하는 좀 더 나은 생산방식이 요구되며 이러한 생산방식이 새로운 기준 (new normal)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전략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 70억 명의 소비자에게 소비 습관을 바꾸도록 설득해야 할까? 아니면 15억 명의 생산자를 설득해야 할까? 분석에 따르면 보다 실용적인 해결책이 있다. 약 500여 개의 기업이 주요 원자재 시장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상당 수 기업이 보다 높은 수준의 생산기준을 따르도록 만들 수 있다면 원자재시장에서 지속가능성을 보편적 가치로 삼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원자재 기타 중점 원자재

| | |
|-------|-------------|
| 목재 | 낙농품 |
| 펄프/제지 | 사탕수수 |
| 대두 | 목화 |
| 팜유 | 바이오 에너지용 작물 |
| 쇠고기 | 양식 연어 |
| 양식 새우 | 사료어 |
| 참치 | 자연산 새우 |
| 흰살 생선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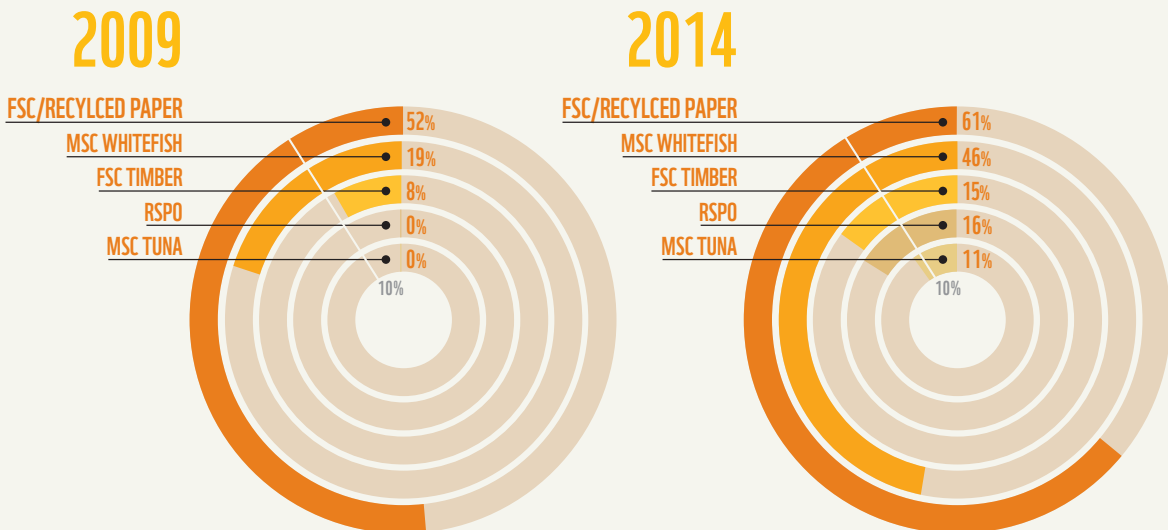
변화 방법

WWF는 기업들이 개선된 원자재 생산방법 기준을 따르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그 접근법으로는 현장 관행 개선, 공급체인 개선, 금융 투자 및 정부 정책까지 다양하다.

- **기준 및 인증:** WWF는 원자재 생산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증, 즉 산림관리협의회(FSC), 해양관리협의회(MSC), 지속가능한 팜유 생산을 위한 협의회(RSPO) 등을 지지한다.
- **생산자 참여:** WWF는 생산자, 특히 소규모 자작농 및 영세어민의 환경적 영향 완화, 국제 시장 접근 및 생활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보다 넓은 지역에서의 생산관행 개선을 지지한다.
- **기업 참여:** WWF는 주요 기업들이 운영방식 및 공급체인을 바꾸도록 직접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산업 플랫폼 및 연맹을 통해 보다 큰 변화를 이루도록 요구하여 그 효과를 증대시키고 있다.
- **지속 가능한 금융:** WWF는 금융 부문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환경적, 사회적 문제 및 리스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금융기관이 보다 지속가능한 원자재 생산에 참여하는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 **공공정책:** WWF는 산림 및 어업 관리, 중국의 은행 규제, EU의 목재 수입 및 바이오 연료 규제, 공공조달정책 등 정부 정책 및 규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율적 기준을 보완하고 있다.

인증 생산의 증대

WWF는 핵심 원자재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인증 확대를 지원해왔으며, 그 결과 인증 생산이 확대되었다. 일부 인증 원자재 생산은 틈새 시장에서 주류시장으로 옮겨가면서 10%를 돌파했다. WWF는 동시에 신규 RSPO 팜유 농장 절차 개선부터 주요 해양 서식지에서의 MSC 어업의 영향 제한까지 기준 강화를 지원해왔다.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성을 경쟁전(pre-competitive) 요건으로 규정하려 한다. 이는 전기기기 판매 시 안전인증이 전제조건인 것과 같이 원자재가 지구의 생태적 한계 내에서 생산되었는지 검증여부에 따라 시장접근이 결정되는 것이다.



3천 5백만 책임경영

헥타르의
FSC 인증 산림:
WWF와 IKEA와의
파트너십의 결과

WWF는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판단되는 100대 기업을 선정했다. 이들 기업의 약 3/4은 다자간 이해관계자 협의회에 참여하거나 인증된 원자재의 구매목표와 그 시한을 공표하는 등 구매방식 개선을 시작했다. 이는 공개적 행동을 취한 기업 비율이 1/4에도 미치지 못했던 5년 전에 비해 상당한 진전이라 할 수 있다.

이보다 더 나아가 보다 지속 가능한 원재료 구매전략을 광범위하게 시행한 기업도 있다. 100대 기업 중 10개사는 자사 공급체인의 환경적, 사회적 리스크를 분석하기 위해 WWF가 개발한 공급리스크 분석 도구를 활용한 바 있다. 또한 사업분야 및 정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공동행동을 지지하는 기업도 있다. WWF는 일부 기업과 심층 전략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그 예로 IKEA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독일 영토 크기만한 3천5백만 헥타르의 FSC산림 인증에 기여했다.



투명성 증대

명확한 정보 공개 및 정기적으로 진척사항을 감독하는 것은 WWF의 주요 역할에 속한다. 이를 통해 기업, 금융기관 및 정부가 개선할 부문을 확인하며 상대적 성과를 판단할 수 있으며, “최고를 향한 경쟁(race to the top)”이 가능해진다. 또한 다른 기업 등도 활동을 비교 및 판단하고 그에 따른 투자 및 구매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한다. 그 예로, WWF의 팜유 구매자 평가표(Palm Oil Buyers Scorecard), 대두 리포트카드(Soy Report Card), 환경 제지 지표(Environmental Paper Index) 등을 들 수 있다.

개선활동이 부진한 기업에 대한 압력

WWF는 구매자 및 금융기관에게 산림파괴 및 기타 환경 파괴적 관행에 관여한 기업과 협력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해왔다. 그러한 기업의 예로는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열대 우림 파괴에 책임이 있는 Asia Pulp and Paper (APP)를 들 수 있다.



1억 8500만 헥타르

현재 전세계적으로 1억 8500만 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FSC 인증을 받았다. 연구조사에 따르면 FSC 인증을 받은 벌목작업은 다른 방식에 비해 산림파편화(forest fragmentation) 및 야생동물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법 집행이 취약한 지역의 경우, FSC 인증이 밀렵, 불법 벌목, 채굴, 산불 등의 위협을 예방하는데 보호구역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증명되었다. 또한 인증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 및 생활 개선, 노동자 및 지역사회의 벌목회사와의 협상력 상승 및 보다 공정한 이익 배분의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 소작농 생산성 향상

프랑스의 슈퍼마켓 체인 까르푸(Carrefour)와의 협력을 통해 수마트라의 약 350명의 소작농이 RSPO인증 지속 가능한 팜유를 생산하도록 지원했다. 소작농들은 개선된 관리방법을 통해 농약 사용을 줄임과 동시에, 생산성은 20% 이상 개선했다. 이는 이들이 주요 열대 우림 서식지를 개간하지 않고도 생활수준을 개선하고 팜유 생산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바닷새 사망 90% 감소

MSC 어업은 부수어획을 줄이고 바닷새, 바다거북, 고래 등 다른 종에 대한 영향을 감소시키는 계획을 이행 중이다. MSC 인증 조건으로 남아공의 헤이크 트롤선은 새를 쫓는 줄을 설치함으로써 바닷새 사망을 90% 낮추었다. 알바트로스새의 사망개체수는 2004년 연간 7,200마리에서 2010년 약 80마리로 감소했다. WWF의 핵심 어종 중 흰살생선(헤이크, 대구 등)의 절반 가까이가 MSC 인증을 받았다.



2/3 개선

WWF는 메소아메리칸 리프 집수지 지역에서 농부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현재 해당 지역의 총 농지 중 2/3에 해당하는 24만 헥타르 이상에서 개선된 농법을 사용하고 있다. 농약 독성은 68%, 비료 사용, 물 사용 및 토양침식은 약 1/3 감소했다. 이를 통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배리어 리프(보초)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제로 - 2020년까지

전세계 최대 소비재 기업 중 400개 기업을 대표하는 소비재포럼(Consumer Goods Forum)은 열대 우림 파괴의 4대 요인(쇠고기, 팜유, 펄프/제지 및 대두)의 경우, 2020년까지 산림파괴가 없는 공급체인을 만들기로 약속했다. WWF는 그 중 다수의 기업 및 관련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Why we are here

세계자연기금(WWF)은 지구의 자연 환경 파괴를 막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미래를 위해 일하는 세계 최대 환경단체입니다.

wwfkorea.or.kr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바랍니다.
mti@wwfkorea.or.kr
jypark@wwfkorea.or.kr